

[예배모범 - 추석]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찬양’

공진수 목사 / 2004 / 페이지 수: 2

지난 주 월요일 가족들과 할인마트에 갔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이었건만 시장은 명절 전 대목의 모습은 간데없고 웅하니 쓸렁하기만 하였습니다. 추석 선물로 내놓은 상품들도 단가가 낮은 전략 상품들이 내 눈에 띄게 많았고, 한 가지를 사면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따져보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최근 한국 경기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명절이 부담스럽고, 힘겹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명절이라고 해서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게 보내야만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복으로 주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추석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풍습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부르는데,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8월 15일인 한가위는 8월의 한 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위’라는 말은 신라 때 길쌈놀이인 ‘가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길쌈’이라는 실을 짜는 일을 말합니다. 신라 유리 왕 때 베 짜는 여자들이 한가위 한 달 전 궁궐에 모여 두 편으로 나누어 한 달 동안 베를 짜고 한가위날 그동안 어느 편이 베를 더 많이 짰는지 겨뤘습니다. 이날 진편이 이긴 편에게 잔치와 춤으로 갚은 것에서 ‘가배’라는 말이 나왔는데 후에 ‘가위’라는 말로 변했습니다. 추석(秋夕)은 정월 명절과 더불어 한국에서 제일 큰 명절입니다. 이 달에는 추분(秋分)이 들어 있고, 농사일도 거의 끝나고 햅쌀과 햇과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높고 날씨는 쾌청하여 예부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는 말을 늘 하고 또 들곤 합니다.

추석 때만 되면 객지에 나갔던 식구들이 고향으로 모입니다. 온 식구가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식사하며 성묘를 합니다. 그동안 분주하고 바쁘게 보내느라 못했던 이야기, 막혔던 대화의 담을 헐고 하고 싶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이 가족 전체를 상봉하며 가품을 익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오곡이 풍성하므로 다양한 음식이 시절에 맞게 나옵니다. 이 날엔 햅쌀로 밥을 짓고 송편도 하고, 수확의 기쁨을 추석 차례로써 알립니다. 물론 성도들은 추도예배나 감사예배로 한 자리에 함께 합니다. 새 옷 차림으로 차례를 지내고 음복하고,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은 다음 집안 식구가 산으로 성묘 갑니다. 남자들은 시름 판에서 힘을 겨루고, 여자들은 널뛰기를 하기도 하며, 아이들은 폭죽을 터뜨리며 동네를 질주합니다. 저녁에는 식구가 평상에 앉아 둥근 달을 보며 담소하고, 남쪽 지방에선 강강술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추석에 다시 찾는 감사

어려운 시기에 맞이해야 할 민속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하박국의 감사의 찬양을 생각해 봅

니다. 당시 그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에게는 식량이 없었고, 그가 맺고자 하던 열매들은 결실치 못하였으며, 그의 민족은 이방 포로가 되어 학대를 받고 있었고, 슬픔, 비통, 아픔과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실은 조금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러한 악조건 하에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조그마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6~17)

풍성한 선물과 식탁을 나누어야만 명절을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친지들과의 소중한 만남,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회복,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예배……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이 가을 더욱 더 감사가 넘치는 기쁜 명절을 보내도록 합시다.

*** 출처 : 온누리신문**